

전국 확진자 1만3천명...광주·전남 600명대 첫 돌파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682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시행된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자가진단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될 수 없어 확산하고 있다. 전국 확진자수가 역대 최다치인 1만 3,012명을 기록한 데 이어 광주·전남에서도 682명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 확진자수는 광주 396명, 전남 286명이다. 광주와 전남 단일 지역으로도 최다 기록이며, 합쳐서도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기존 최다치

는 광주의 경우 지난 19일 359명, 전남은 지난 24일 206명이었다. 광주·전남을 합쳐서도 지난 19일 519명을 크게 웃돈다.

최근 오미크론 감염자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하루 만에 50% 폭증 최대 경신
오미크론 80% 우세종 확인
병원 등 집단·연쇄감염 잇따라
고위험군 우선 PCR검사 전환

의 80%를 넘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으로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동구 요양병원에서 44명(누적 387명), 광산구 요양시설에서 3명(누적 154명), 북구 요양병원에서 4명(누적 82명)이 각각 추가됐다.

상무지구 한 대형건물의 입주 업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직원 26명이 확진됐다.

교육시설 등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전체 확진자수 중 초·중·고생이 27%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이 218명, 유증상 검사자가 116명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목포(72명)·영암(18명)·무안(18명) 등 서부권의 확산세가 여전하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래 확진자의 가족·지인 등으로 연쇄감

염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 51명·순천 27명·광양 12명 등 동부권의 감염 상황도 심각하다.

이외에도 나주·진도 각 21명, 화순 11명, 함평 9명, 영광 8명, 해남 5명, 장성·강진 각 3명, 보성·완도·신안 각 2명, 고흥 1명 등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 확진자수도 역대 최다치인 1만 3,012명이 발생해 누적 76만 2,983명을 기록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는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며, 발표일 기준으로 73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난달 1일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뒤로는 56일 만이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 8,571명보다도 4,441명이나 더 많다. 하루만에 50% 넘게 폭증하면서 이를 연속 최다 기록을 썼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감염 상황이 심각한 광주·전남과 경기 평택·안성에 대해 고위험군만 우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앞서 전남 중대본은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와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 보건소에 자가진단키트 9만 6,000명분을 우선 전달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42명, 전남 154명이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실력 광주’ 아~ 옛날이여

수능 성적 전국 평균 밀돌아...전남은 최하위권

‘실력 광주’ 명성을 이어왔던 광주지역 2021년 수능 능력시험 성적은 전국 평균을 밀돌고 전남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교조 출신인 시·도 교육감의 교육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회복 대안책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 도고 3학년의 국·영·수 등급별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의 경우 최상위권인 1등급 비율(전체 수능 응시생 대비 2.9%)이 광주 2.2%, 전남 1.3%였다.

광주는 대구(3.0%), 대전(2.5%)보다 낮았고

부산(2.2%)과 같았다. 서울은 1등급 비율이 4.9%였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수학가의 1등급 비율(전체 평균 3.1%)은 광주 2.3%, 전남 1.2%였다. 광주는 대구(2.4%)보다 낮았고, 대전(1.4%)보다는 높았다. 부산(2.3%)과는 같았다. 서울은 1등급 비율이 6.3%였다. 전남은 충북(0.8%), 경남(1.0%)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학 1의 경우 1등급 비율(전국 평균 4.0%)은 광주 3.3%, 전남 2.2%였다. 광주는 대구(4.0%), 부산(3.6%)보다 낮았고, 대전(3.1%)보다 높았다. 서울은 1등급 비율이 7.0%

였다. 전남은 강원(1.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영역의 경우 1등급 비율(전체 평균 9.7%)은 광주 8.2%, 전남 5.7%였다. 광주는 대구(10.6%), 대전(10.1%), 부산(9.4%)보다 낮았다. 서울은 1등급 비율이 15.3%였다. 전남은 충북(5.3%)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1년 후에 이러한 지역별 수험생(재학생) 등급 비율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출신인 시·도 교육감 임기 이후 거론됐던 학력 저하 문제 지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서 실력저조에 따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장위국 교육감과 장석웅 교육감은 실력저조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이제는 학력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로 보조교사 등을 채용해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설 연휴 전날 18~20시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경찰청·교통공단, 5년간 통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귀성길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26일 두 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일평균 734건으로 평소(연간 일평균 599건)보다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767건)에 집중됐다.

설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적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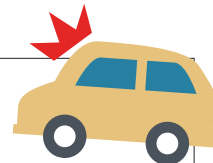
으나, 가족단위 이동 증가로 사고당 인명피해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동안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약 400건으로 평소(599건)보다는 줄었으나 100건당 사상자 수는 182.3명으로 평소(150.3명)보다 21% 많았다. 설 당일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사고 한 건당 사상자 수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사고 비율(2.7%)은 평소(1.9%) 대비 1.4배 증가해 장거리 운전대에 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은 익숙하지 않은 타지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어운전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 사고 비율(12.2%)도 평소(8.4%) 대비 1.5배 높았다. /최환준 기자



함께해요 청년창업!

청년의 열정을

복구가 응원합니다.

청년창업이 뿌리내릴 토양마련



청년창업이 움트도록 영양공급



청년창업이 열매 맺을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